

대행 스님

이 몸 안에서 움쭉 못하는 마음을 툭툭 좀 던져 봐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항상 이날까지 설법을 해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질문을 해서 서로 응대가 있어야만 알아지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오늘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여) 큰스님! 질문 올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선원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조금씩 체험이 되는 과정을 시나 글로 적어서 스님께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스님께서 "백지 편지를 써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지 편지라는 편지 아닌 편지를 쓰기 위하여 저는 한 일 년여를 몸부림을 치면서 참구에 참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 갈래 만 갈래, 들어가는 길은 천 갈래 만 갈래지만 나오는 길은 한 길뿐이라는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참으로 경이로움의 세계였습니다.

여태까지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음에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길이 한 길임을 알고 나면 무슨 별천지 세계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평상심,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별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기고만장한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법회도 조금 빠져 먹고 옛날 그림책 구경도 조금조금 하면서 그럭저럭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지원의 스님께서 질문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는데 산이 산이 아니며, 물이 물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이 산이 아닌 도리, 물이 물이 아닌 도리를 참구하기 위하여 두 달여를 몸부림을 쳤습니다. 참구에 참구를 거듭하고 보이지 않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문 아닌 문에 부딪치면서 너무나 답답한 가슴을 이길 길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입니다. 증조모님 제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지방을 써 가지고 상 위에 탁 올리는 순간, 큰스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큰 바다에 파도가 일어 한 줄기 물방울로 나투어진 것이 옴이요, 파도가 멎어 물방울이 가라앉음이 가는 것인데 언제까지 하나가, 큰 바다에 하나가 돼 있는 그 조상을 어느 물이 내 조상이라고 붙잡고 늘어지려 하는가!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너무나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느끼고 '아,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정된 관념을 깨면, 증조모님이라는 그 고정관념만 깨서 절대의 바다로 보낼 수만 있다면, 아, 그렇다면 그 절대의 바다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절대의 바다는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됨과 동시에 상이 휙 돌려져서 저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증조모님을 향하여 절을 올리고 밥을 올리고 수저를 올렸던 그쪽의 상이 나에게로 휙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저는 관념적으로 알았던, 이론으로 알았던 그런 모든 것보다 너무나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끼면서 그 순간 번개같이 번쩍 번쩍 번쩍, 그 느낌의 의식들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를 스쳐 갔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산이 산이라는 그 관념만 깨고 물이 물이라는 그 고정관념만 깬다면, 산으로 물이 흐르는 소식과 진흙소가 강물을 건널 수 있는 그 소식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큰스님 말씀이 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법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무심코 들어 넘겼던 그 말씀이 그 순간 너무나 아프게 저를 찔러 댔습니다.

큰스님!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굳이 말로 이렇게 질문을 올려야 하고 대답해야 하는 큰스님의 고통을 정말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스님의 그 말씀, 떠오른 그 말씀이 도저히 제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스님께서는 그 절대의 바다마저도 마셔야 하고, 마신 것을 토해야 하고, 토한 것을 함께 더불어 먹여 살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절대의 바다에 오기까지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절대의 바다마저 삼키고 토하고 더불어 먹여 살리라는 그 엄청난 도리를…. 가도 가도 너무나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현상계에, 큰 바다 위에 한 방울의 물로 나투어진 저희들이 현상계에 머무는 이 짧은 기간에 그 엄청난 도리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고 갈 수 있을는지 큰스님의 높으신 법문을 바랍니다.

큰스님 우리는 지금요, 시공을 초월해서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고 있다구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예가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산다. 넘어서서 산다. 우리가 정신이 아니라면 몸을 어떻게 이끌어 가지고 가겠습니까. 저 언덕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정신계거든요. 그리고 내가 항상 말했죠?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툰다. 고정된 게 없이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생활을 한다. 걸어오는 발자취가 앞으로는 걷지 않았으니깐 없고, 뒤는 자꾸 가니깐 없고, 현재에도 공해서 떠벅떠벅 떼어 놓고 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생활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대로 아까 말마따나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이만하면 아주 족한 것을…." 하는 그런 말이나 똑같은 얘깁니다. 그리고 또 고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하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애쓰고 가는 이 마당에서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또 천차만별의 만 가지 일을 연구를 한다 해도 손색이 없다. 지금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발명해서 발표를 하고 이랬지만, 이 부처님 법이란 아주 심오하고도 묘하고 광대하고도 무변해서, 즉 말하자면 내가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연구해서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거 하나 건지지 못하는 게 없다. 왜냐.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도, 하다못해 물 한 방울도 안 돼 보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물 한 방울조차 돼 봤던 분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에도 그 이름이 거기에서 솟아오른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천차만별의 이름들을, 천차만별의 모습들을, 천차만별의 마음으로써 연구하고 사는 그 모습들이 모두가 부처님 한마음에 들어 있으니, 그 마음 하나에서 다 천차만별의 가지가, 가지가지마다 거기에서 풀리고 나온다. 우리가 뭐를 한 가지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해서 남들이 다 알게 하는 그 어떤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들어서 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본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살기 때문에 본래 정수에 콤퓨타로, 자동적인 콤퓨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거든지 능히 주어지니까 내 마음을 마음대로, 내 마음이 마음대로 넘어서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주저주저하지 않고 마음대로 넘어설 줄도 알아야 된다. 걸을 줄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깊은 물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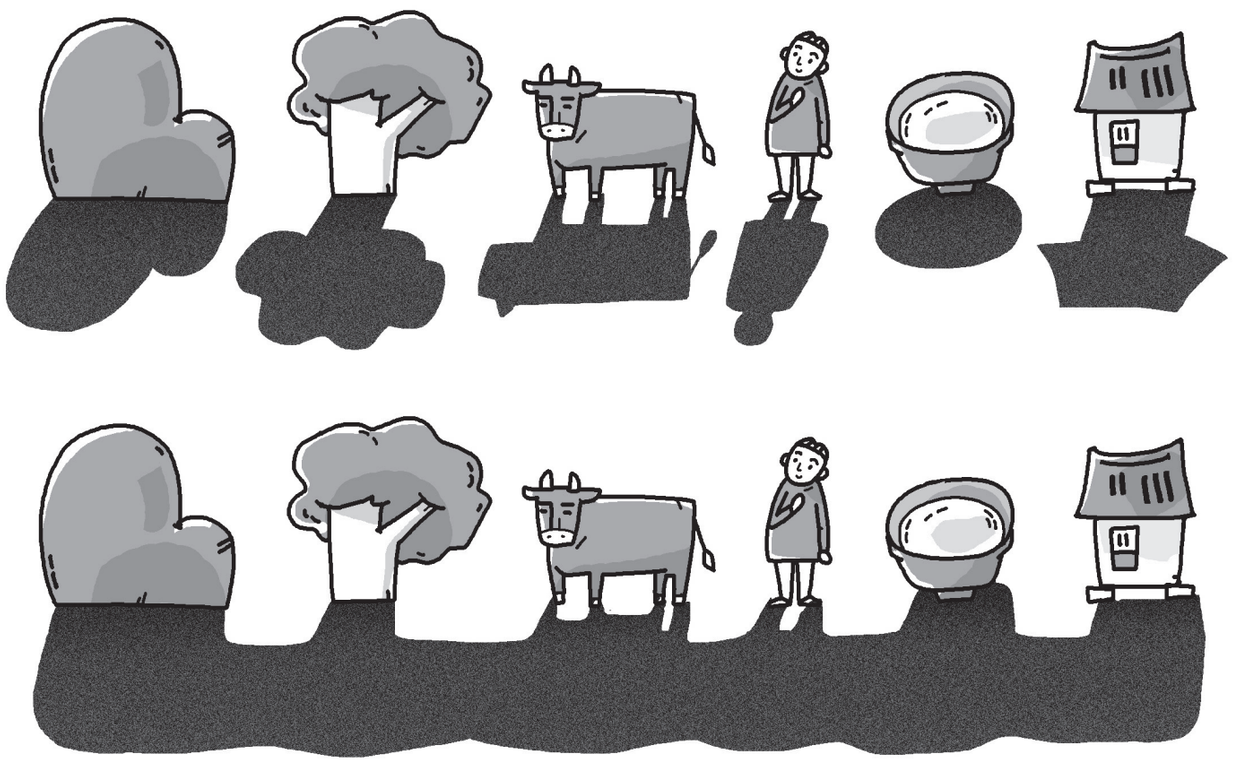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